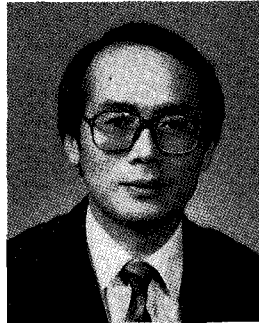


기업내 환경관리조직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1. 선진국의 기업환경관리조직 제도

최 근 산업기술 정보원의 “선진국환경동향” 분석에 의하면 EC(유럽공동체) 위원회에서 기업내에 품질관리 시스템과 유사한 환경관리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한 환경감사규칙이 제정 공포된 내용이 발표되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규칙의 주요골자는 기업내 최고 경영층은 환경대책의 방침을 미리 설정하고, 환경보호조직이 기업내에 결성되어 활동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환경감사를 실시하여 그결과를 환경성명서로 작성 공포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이는 ISO(국제표준화기구)에서 논의중인 환경관리시스템의 국제규격화(ISO 9000)제정에 대한 토대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또한 이보다 앞서 이미 이웃 일본에서는 20년전(소화 46년)에 “특정공장에 있어서 공해방지 조직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여 공장내 공해방지조직을 설치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의 취지를 요약하면, 일본은 우리나라 보다 앞서 공해대책 기본법외에 여러 공해 관련 법률이 존재하는 복수법 체제이지만 이들의 법적규제만으로는 공해를 충분히 방지할 수 없다고 보고 보다 유효한 공해방지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해 발생원에 있는



張俊榮
(본연합회 회장)

사업자 자신이 공해방지에 적극투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사업자 자신이 공해방지에 노력하는 의식을 갖게 함과 동시에 공해방지대책이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기업조직을 정비시키고 더한층 지역 및 업계간의 협력체계를 확립하는 등의 공해방지효과를 얻고자 하는 의미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공해방지 대처가 오늘날 일본이 환경기술을 앞서가게 한 토대가 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2. 우리나라 기업의 환경관리조직 동향

작년(92년) 6월 5일 세계 제20회 환경의 날을 전후하여 온지구가 UNCED(유엔 환경개발회의)를 계기로 환경문제로 술렁이던 즈음에 우리는 3개의 환경선언을 접할 수 있었다. 하나는 “리우선언”이

있고 또 하나는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선언” 그리고 우리가 주목할 만한 “기업인 환경선언”이었다.

“기업인 환경선언”의 행동강령 제2항 중에는 “환경관리체계의 개선”이라는 항목하에 “영업활동과 관련된 각종 환경문제를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내 환경관리전담조직을 설치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간 우리네 기업의 환경관리는 환경관리인에게만 국한되어 거의 피동적으로 환경문제를 다루어 왔고(주로 법령에 근거해서 기준유지에 급급하여 처리에만 한정하여 다루었다고 볼 수 있음)여기에 조금 전향적이라고 볼 수 있는 조치라면 오염물질 다량배출업체에 환경관리전담부서(과, 계)를 두도록 관에서 권장하는 정도의 시점이었기 때문에 기업내 환경관리전담조직을 설치하도록 한다는 선언은 환경인들이 보기에도 이제 우리네 기업인들이 국제적인 감각과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생겼다는 믿음과 안도감에서 박수를 보내기에 충분하였다. 왜냐하면 UNCED는 “제2 UR협상”이라 일컬을 정도로 환경을 전제로한 무역장벽을 예고하였고 이때 대두된 각종협약들은 환경기술을 보유하지 않고는 국제사회에서 낙오될 수 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였다. 또한 기업도 환경관리에 능동적 대처없이 는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

로도 생존 하기가 어렵다는 여론이 팽배하였기 때문이다(지금도 그러하겠지만...) 따라서 "기업인 환경선언"이 능동적이냐는 문제를 떠나서 이는 기업 환경관리조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대내외적으로 공포했다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그러나 그후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 본인은 몇개의 대기업을 제외하고 이에 상응한 조치를 했거나 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적이 없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제도화의 조짐은 더욱 들은적이 없다.

아니 오히려 환경관리조직은 커녕 그나마 환경관리 일선에서 고군 분투하고 있는 환경관리인의 고용완화 내지는 법적 채용수를 대폭완화해 달라는 기업인들의 요청과 여기에 발맞추어 경제와 환경의 불가분의 관계와 국제추세는 외면한채 환경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근 속속 발표된 환경법 및 기타법령(특별조치법 등)에서 이를 대폭 완화해 버리고 있는 실정이다.

3. 기업환경관리조직의 필요성

국제적인 추세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현재 우리네 기업의 환경관리 실태를 보면 현실적으로 환경관리조직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현재 기업체의 환경업무(기술, 관리, 행정)는 환경관리인에게 책임이 주어져 있는 형태이다.(그나마 법적고용수가 줄었지만)

사업장의 환경업무는 그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종합관리 system도입이 필요하다. 즉 원료의 선택, 사용 및 오염배출과정인 생산공정과 오염저감을 위한 방지공정으로 대별되는 전과정에 있어 각 분야별 전문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기업환경보전과 관리체계에 보다 효율성을 진작시킬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장의 환경업무는 그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종합관리 system도입이 필요하다. 즉 원료의 선택, 사용 및 오염배출과정인 생산공정과 오염저감을 위한 방지공정으로 대별되는 전과정에 있어 각 분야별 전문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기업환경보전과 관리체계에 보다 효율성을 진작시킬 수 있다. 기업체에서 하위직 수준에 머물고 있는 관리의 역할을 아무리 향상시킨다 해도 한계가 있으며 그간 환경행정관청에서 기업체의 환경전담부서 설치권장의 역할로는 광범위한 환경업무에 적극적이고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응이 어렵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미 실시되고 있는 기업내 안전관리조직 및 품질관리조직 등을 참조해서 전문인은 아니라도 기업내 전 직원이 환경의식을 가지고 협조하는 환경관리조직이 신속히 제도화 되어야 한다. 지

금 온국민은 가정에서부터 환경관리개념을 도입하고 또 이에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기업에서는 한 두명이, 아니 그것도 몇개기업을 혼자서 환경관리하도록 내버려둔다면 과연 우리는 장래에 어떤 결과를 맞이할 것인지 염려가 된다.

4. 결언

기업체에서는 이제 환경문제를 부분적 요소나 부수적 업무정도로 취급하는 관행을 탈피해야 한다.

우리는 1992년 리우환경회의를 기점으로 전세계가 환경을 전제로 한 무역규제의 조짐이 날로 더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기업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제 기업인은 기업경영에 있어 환경경제의 개념을 도입해야 하는 등의 인식전환이 필요한때다.

이러한 배경과 기업환경보전의 발전 도모 그리고 환경보전 중시 풍토의 시대적 배경으로 볼 때 환경을 도외시한 기업은 낙오될 수밖에 없다.

본인은 그간 누차 기업내 환경관리조직의 필요성을 현실에 비추어 역설한 바 있다. 이제라도 기업체에서는 환경전담부서의 설치는 물론 사내환경관리조직을 제도적 또는 자발적으로 설치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정부 관계부처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화를 서둘러야 함은 물론이다. ◀

'발언대'는 건강한 소리를 담고 싶습니다. 언제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있는 '발언대'에 회원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편집자>